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왕국주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5. 속죄하신 구세주를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성령강림절기의 마지막 주일을 맞은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총이 참으로 넉넉합니다.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 친히 희망의 빛이 되어 주셨고, 길을 잃어 허둥거릴 때는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시련의 풍랑이 닥쳐올 때는 안전한 포구가 되어 주셨고,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는 산성이 되어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건만 우리 영혼은 너무도 변덕스러웠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 원하지만,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로 향하기에 분주했던 저희들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철든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식구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시121:5-6 인도자

♠ 교 독 문 32 시편143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권미정 집사 II. 한상의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88. 내 진정 사모하는 다함께

성경봉독 I. 고전12:12-31 인도자

II. 요21:9-14 장혜숙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그리스도의 몸 장영숙전도사

II. 와서 아침을 먹어라 ... 김준우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헌신의 찬송 423. 나의 믿음 약할 때 다함께
- 봉 헌 다함께
-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다가오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땀흘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평화와 생명이 일렁이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꿈을 우리 속에 심어주신 주님, 그 곱고 아름다운 꿈을 잘 가꾸며 살겠습니다. 상처 입은 이들, 외로운 이들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조차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주십시오. 아멘.

-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총회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인도 : 회장 혹은 인도자	기도 : 박경선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하진솔 선생 장영숙 전도사	인도자 이한림 집사

11월	영접위원	방문성	홍순구	박규석	박해경	안홍숙	박경선
	헌금위원	구성실	이호원	김근중	안길상	최숙화	강순배

매일 저녁

기도는 노래처럼 신성하고 치유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기도는 신뢰이며 증명이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간청하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 상태와 고뇌를 이야기할 뿐이다. 그는 어린아이들이 노래하듯이 자신의 노래와 고마움을 흥얼거린다. 피사의 교회 마당에 오아시스와 노루들 한가운데 그려져 있는 축복 받은 은자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다. 이런 식으로 나무와 동물들도 기도한다. 훌륭한 화가들의 그림에서는 나무와 산도 빠짐없이 기도한다.

경건한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러한 기도에도 도달하기까진 먼길을 가야 한다. 그는 양심의 연옥을 안다. 그는 몰락에 내재한 죽음의 가시를 안다. 그는 모든 종류의 분열, 괴로움, 절망을 경험했다. 이 길의 마지막에 이르러 그는 가시밭길에서 찾아 헤맨 축복이 얼마나 소박하고 친진난만하며 자연스러운지를 알고는 놀라워한다. 그러나 가시밭길은 의미가 없지 않았다. 집으로 귀환한 사람은 항상 집에 머무른 사람과 다르다. 그는 더 내적으로 사랑하며 정의와 망상에서 더 자유롭다. 정의는 집에 머무른 사람들의 덕목이다. 이것은 오래된 덕목이며 원시인들의 덕목이다. 그 후대의 사람들인 우리는 그러한 덕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행복과 신뢰하는 덕목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중략)

나는 가까운 초원에서 앵초, 클로버, 미나리아재비 등의 꽃을 꺾어 성당 안에 내려놓는다. 나는 처마 밑의 난간에 앉아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경건한 노래를 읊조린다. 나의 모자는 갈색의 담장 위에 놓여 있다. 파란 나비 한 마리가 그 위에 앉는다. 먼 계곡에서는 기차가 가늘고 부드럽게 기적을 울린다. 덤불 위의 여기저기에 아침 이슬이 빛나고 있다.

매일 저녁

매일 저녁 그대는 자신의 하루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하루가 신의 마음에 들었는지

행동과 충실함으로 인해 기뻐했는지,

걱정과 후회로 인해 낙담하지나 않았는지 알기 위해서,

그대는 그대가 사랑한 것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증오와 불의를 그대 앞에 조용히 고백해야 한다.
그대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적으로 부끄러워해야 하며
그 어떤 어두운 그림자도 침대에 두어서는 안 되며
영혼의 모든 근심이
멀리서 천진난만하게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정화된 내면에서 자신 있게
그대는 그대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대의 어머니와 어린 시절을.
보라, 그러면 그대는 순수해지면서
황금빛 꿈들이 위로하듯이 손짓하는
시원한 잠의 우물을 깊이 들이마시고
새로운 날을 명쾌한 감각을 지니고
영웅과 승리자로서 시작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신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를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모든 내적인 힘들의 가장 내적인 통합으로, 그리고 관용과 최상의 것과 유일하게 필수적인 것에 대한 긴장된 의지로 체험하는 사람은 오늘의 기도에서 평생 지속되는 힘을 길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게으른 것을 물리치고 노력 중인 것을 끌어올리고, 대단히 일반적인 것에 대한 자신의 사소한 관심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인간이 행동과 명상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며 더 이상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동시에 숨을 내쉬고 들이마실 수 없다는 것을 명상자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일은 번갈아 이루어지며 이러한 리듬과 양극성이 곧 삶이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맹렬한 행동을 위해 관찰을 경시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지켜보았다. 그러한 행동은 공허한 역동성의 승배와 위험한 삶의 찬미, 간단히 말해서 히틀러와 무솔리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노래는 비록 더 아름다운 목소리에 의해 온화하게 불러진다 하더라도 나에게서는 아무 것도 전해 주지 않는다.

■ 마/음/으/로/위/는/글

양말

-이동순

양말을 빨아 넣어두고
이틀만에 걸었는데 건다가 보니
아, 글썄
웬 풀벌레인지 세상에
겨울 내내 지낼 자기 집을 양말 위에다
지어놓았지 뭐니까
참 생각 없는 벌레입니다
하기사 벌레가 양말 따위를 알 리가 없겠지요
양말이 뭔지 알았다 하더라도
위낙 집짓기가 급해서 이것저것 돌볼 틈이 없었겠지요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양말을 신으려고 무심코 벌레집을 떼어내려다가
작은 집 속에서 깊이 잠든
벌레의 겨울잠이 다칠까 염려되어
나는 내년 봄까지
그 양말을 고이 걸어두기로 했습니다

(벌레와 당신이 맺은 작은 화해 하나로 인해 올 겨울이 한층 따뜻할 듯합니다.--반칠환의 덧붙임 글)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한글 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철수 유영남 한완식 임정자 권호천 배삼순 김준호 곽혜자 김용진
 박효선 김혜권 백승민 유명숙 박창운 허정윤 이인웅 이유선 방극숙
 최종원 장민숙 박시내 이성운 권미숙 최희미

월정헌금:

김정애 조순덕 황원순 황자순 권미정

감사헌금:

박창운 허정윤 이성운 우영규 유혜경 김종수 오정숙 무명2

생일감사헌금: 김준우 조병무 조해인

캄보디아우물헌금: 김금순 임종우 김윤정

100주년 기념사업헌금:

장영숙 윤수진 박홍재 이호원 (100주년 헌금 누계: 124,900,000원)

◇ 속회 보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장 혜 숙	장 혜 숙	조 순 덕	농 봉 임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김 미 순	노 순 옥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이 소 순	서 원 금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이 명 희	김 명 순
갈 릴 리	안 정 숙	박 애 순	안 정 숙	박 옥 순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이 인 섭	오 정 숙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허 정 윤	임 미 심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권 미 정	이 기 분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오 복 순	김 금 순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이 형 숙	권 미 숙
가 버 나 움	안 흥 숙	오 현 정	안 흥 숙	정 지 은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야 외	김 시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송 양 진	김 혜 권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이 증 자	이 영 란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임 창 선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왕국주일** : 오늘로서 성령강림절기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 성탄절 전 주일까지는 강림절기입니다.
2. **임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11월 정기임원회가 열립니다.
3. **선교회 총회** :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선교회별로 모여 총회를 합니다. 오늘은 결산 총회로, 다음 주일 오후에는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로 모입니다.
4. **교사교육** : 오늘 오후 3시 10분 세미나실에서 ‘평화교육’에 대하여 개척자들의 이형우 간사님을 모시고 교사교육을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아름다운 원로** : 28일(수) 오전 10시 30분에 모입니다.
6. **재해구호헌금** : 다음 주일에는 사이클론으로 황폐화된 방글라데시 형제자매들을 위해 구호헌금을 봉헌합니다.
7. **당회** : 12월 9일 오후 2시에 친교실에서 2007년도 당회로 모입니다. 당회원은 입교인 전원입니다.
8. **세례·입교 신청** : 오는 성탄절에 세례 받고 입교하기 원하는 이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9. **보고서** : 각 부와 선교회는 일년 동안의 활동을 A4 한 장 이내로 정리하여 오늘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신앙실천** : 11월 26일(월)은 아무 것도 사지 않는 날입니다. 필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의 소비 패턴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가나안 속

토요봉사(1일) : 김필순 조병주

* 캄보디아 우물 기부 신청자 :

김희진(생일) 임원민 임수연(휘성이 생일) 김중수 (생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